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사단법인 제주어보존회 이사장

지금은 프로 선수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모든 게 용인되지는 않는 시대다. 프로는 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다. 프로들은 주로 스포츠계나 연예계에 있다. 프로는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높은 인기를 얻으면 스타가 된다. 스타는 팬들로부터 남다른 기대와 성원을 먹고 산다. 요즘 팬들이나 대중의, 프로와 선수에 대한 판단과 대우는 매우 냉철해지고 있다. 영웅히 추앙 받는 스타도 없고 변함없이 추종하는 팬들도 드물다. 훌륭한 스타도 일순에 무너질 수 있다.

프로와 대중의 시대상

프로 스포츠의 세계에서 선수는 팬에게 고용되어 있는 셈이다. 들은 얘기로, 고종 임금이 등장하는 일화가 있다. 서양인들이 영국대사관에서 맘을 뽀뽀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왕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렇게 힘든 일은 머슴에게 시키지 왜 직접 고생하느냐' 라고 하셨단다. 공교롭게도, 요즘은 팬이 '그렇게 힘든' 일을 프로 선수에게 시키는 그런 시대가 됐다. 팬은 프로 선수에게 응원이나 어떤 댓가를 지불하고, 그 선수에게서 대리만족을 얻는다. 이때 그 팬은 그 프로 선수를 부리는 주인이다. 스포츠계에서든 연예계에서든 프로는 팬들과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실력과 성실성, 그리고 봉사정신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해야 한다. 프로가 제대로 잘못해 팬이나 대중이 응원을 거두면 그는 힘을 잃는다. 선수

와 주인의 관계가 이처럼 맺어진 곳은 경기장이나 공연장 외에 더 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분야에서부터 예술계, 언론, 방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은 살아가는 동안 당분간 그 자리를 점한 일종의 '선수'일 뿐이다. 이들은 유권자, 시민, 소비자, 독자와 시청자 등, '주인'의 지지와 응원을 먹고 산다. 이런 '선수와 주인'의 역할을 잘 모르는 세상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별난 세상에선 '곡학야세'와 '혹세무민'이 판을 친다. 가짜 뉴스와 억지 주장이 함께 날뛴다. 원칙과 법도가 무너져 있다.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제 어장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후안무치'도 제법이다. 옳고 그름을 가늠하느라 주인들은 심기가 참으로 불편하다. 선수들의 행태를 보면, 자신이나 자기편에는 춘풍(春風)이요, 남이나 상대방에는 추상(秋霜)이다. 프

사설

최악의 황사로 '청정제주'가 무색해졌다

마치 공사장을 방불케 했다. 한 눈에 들어왔던 한라산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제주 전역이 뿌연 먼지로 뒤덮인 것이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힐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만이 문제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굉장히 높았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낮 12시를 기해 미세먼지(PM10) 경보에 이어 오후 1시에는 초미세먼지(PM 2.5) 경보를 발령했다. 제주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8년 4월 15일 이후 3년 만이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2015년 예보제 도입 후 이날 처음으로 내려졌다. 이날 한 때 제주시 노형동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985µg/m³와 203µg/m³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또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황사경보도 발령됐다. 제주에 황사경보가 내려

진 것은 2010년 11월 12일 이후 11년 만이다. 이날 미세먼지·초미세먼지·황사 경보 여파로 제주 전역의 대기질이 악화됐다. 대기질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황사와 초미세먼지는 눈·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세먼지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달리 지정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그런데 중국발 황사로 인해 제주 대기질은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형동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당 151µg) 기준의 6배나 웃돌 정도로 나뻣났는가. 이런 상황에서 행정은 고작 외출 자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전부다. 그동안 제주도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시장'에만 맡길건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로 올라 지역사회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제외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 외지인들의 강한 투기 수요로 천정부지의 분양가를 기록 중이다. 초고가의 분양가는 타 아파트 가격 상승에 연쇄 영향을 미쳐 서민·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대책을 요원케 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는다. 최근 제주시에 제출된 연동 한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저 8억8630만원에서 최고 9억4830만원이다.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3억원 가량 비싼 데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타 지역 단지형 아파트 시세가 연달부 터 5000만~1억원 가량 급등한 5억~6억원대를 훌쩍 넘는 시점에 9억원대 분양가 등장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내 아파트 가격 급등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데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마저 없

는 현실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에 풍부한 유동성을 지닌 외부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인 제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건설사 입장에선 최대한 이익창출을 하려는 시도로 이어진 결과다. 결국 서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점점 잃게 되고, 부동산 투기바람으로 인한 '부작용'은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에 시장 원리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제주지역 특성상 도입돼야 한다. 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때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전매제한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가 무산된 이후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다시 추진한다지만 대응 부족 비난을 피할 순 없다. 도는 민간아파트 시장에 전무한 통제장치로 외지인 투기바람에 의한 도민피해 가능성을 중시, 조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열린마당

'마을 이모작' 필요한 행복마을 만들기



양경원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인생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농사에도 이모작이듯이 우리의 삶 또한 이모작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을 또한 동일선상에서 적용해야 할 듯 싶다. 이모작 시기에 인구증가, 개발사업 등으로 제주다움이 많이 사라졌다. 앞으로 이모작에는 마을의 가치에 우선한 정체성을 기반한 마을 자원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마을 행복에 재투자해야 한다. 또한, 마을을 상징하는 자원이 무엇이며 그 자원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좋은 본보기이다. 허나 지금껏 수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효과 면에서는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업 대부분

우수 및 성공사례 중심으로 이뤄지고 주민식 교육 및 단발성 컨설팅으로 끝내다 보니 주민 스스로 배우고 계획을 실행·확인하는 과정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는 과점뿐만 아니라 전국 마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더욱 아쉽다. 올해 제주시 역량강화 사업에 1억 7000여만원이 투입된다. 똑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올인할 계획이다. 첫째, 마을 정체성을 기반한 뉴-트로 방식으로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전통적 가치와 요즘 트렌드를 적절히 융합한 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둘째,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행복마을 만들기다. 신앙, 교육, 경제, 생활, 복지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셋째,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한 마을조직을 활성화하겠다.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워킹그룹 등을 중심으로 주민과 연계하면 된다.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마을공동체가 전 마을에 울려 퍼져야 한다. 주민과 전문가 그룹이 힘을 같이 모을 때가 지금이다.

뉴스-in

제주산 양배추 가격 어떡하나...

도 "폐기 외 다른 해법 없어" 늘리기 위해 미끄럼틀 등 높이 기구들이 나무로 제작되는 등 학교 환경과 어울리는 공간으로 조성. 이석문 교육감은 개장식 축사에서 "북제된 놀이터가 아닌 제주 자연 환경과 어울린 다양한 놀이터가 공존하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 오은지기자

도 "폐기 외 다른 해법 없어" 제주도 관계자는 "전라남도 무안군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10%가량 증가했다"며 "이달 8kg 기준 도매시장 경락가는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0% 정도 하락했지만 산지폐기외 별다른 해법은 없다"고 토로. 고대모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안동우(제주시장) 어머니 풍천임씨 순자(향년 91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30일 01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4월 1일(목요일)
발인일시: 2021년 4월 2일(금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김녕농협 장례문화센터
장 지: 양지공영-김녕리 입산봉 가족선영
* 조문은 2021년 3월 31일(수)부터 가능합니다.
남 편 안창규
아 들 안동수 며느리 이순희
동 옥 한성숙
동 우 이옥림
영 호 오순경
딸 안복자 사 위 박영길
* 연락처 : 안동수 010-5001-6873
안동옥 010-9226-1228
안동우 010-5697-5374
안영호 010-5693-430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청주한공 응수(향년 95세) 상사에 빠르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31일
아 들 한석광 며느리 고영순
딸 한복순 사 위 고봉식
명 자 명숙
석 자 석자
고 희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김관기(1975. 1. 28생)
*최후주소 : 제주시 경춘1길 68, 309동 703호(노형동, 정문마을)
상기자는 2020년 6월 6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7월 25일 제주지방법원 2020노단44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수덕9길 82-7, 202호(노형동)
2021년 3월 31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이유전, 김예림, 김예영, 김호경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 (가임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원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